

정부, 희토류 6000톤 확보

남아프리카 프로젝트 지분 30% 인수 ... 국내수요의 2배

정부가 희토류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.

지식경제부는 빠르면 2011년 남아프리카 잔드콧스드리프트 희토류 탐사사업 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생산능력 2만톤 중 6000톤을 확보할 것이라고 8월12일 발표했다.

2010년 기준 국내 전체 희토류 수요는 3287톤으로 6000톤은 국내수요의 2배에 달한다.

지식경제부는 희토류 확보 대책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남아프리카 희토류 프로젝트의 생산물 지분 30%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.

또 남아프리카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, 베트남에서도 신규 광산 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희토류 부존이 예상되는 베트남·몽골·에티오피아 등과 공동 탐사사업을 하기로 하고 탐사할 때 필요한 지질 전문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.

지식경제부는 홍천·충주 등 2곳에서 1차 초기탐사를 한 결과 희토류 광체를 일부 확인했다며 2012년 정밀탐사와 2013년 매장량평가를 통해 경제성과 환경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.

희토류 예상 부존량은 광석기준 홍천 1200만톤, 충주 1100만톤으로 광맥에서 사용가능한 희토류는 평균 품위 0.6-0.65%짜리 14만톤에 달한다.

지식경제부 관계자는 “그러나 지금 홍천, 충주의 희토류개발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”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.

지식경제부는 전쟁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출할 수 있도록 희토류 비축량을 현재 62톤에서 2014년까지 15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.

아울러 자원 순환촉진 기반마련 등을 위해 <국가 자원순환 촉진전략>을 수립·시행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(c)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1/08/12>